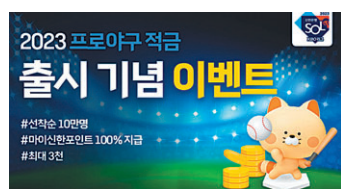


삼성카드-금감원, '2023 소비자 패널 간담회'

삼성카드가 28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2023 소비자 패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금융현장소통반, 카드 소비자보호담당 임직원, 11명의 삼성카드 소비자 패널이 참석했다. 소비자 패널은 다양한 연령층의 금융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30 MZ세대 4명과 시니어 7명으로 구성했다. 소비자 패널의 건의사항에 금융당국 직원이 답변하고, 이후 추가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소비자 건의사항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등이 다뤄졌다. 회사 측은 "소비자 패널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며 "향후 고객 만족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한은행 '2023 신한 프로야구 적금' 출시



신한은행이 4월 1일 프로야구 KBO리그 개막을 맞아 '2023 신한 프로야구 적금'(사진)을 내놓았다. 신한은행의 프로야구 스폰서십 대표 상품으로, 10개 구단 중 응원할 구단을 선택해 월 5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저축하는 만기 12개월 적금이다. 기본금리 연 2.5%에 최고 우대금리 연 2.1%p를 적용해 최고 연 4.6%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6월 30일까지 조기 가입 우대 연 0.3%p, 첫 적금 우대 연 0.3%(최근 1년간 적금 미보유시), 응원 구단 정규리그 1승당 연 0.01%p(최고 0.8%), 모바일뱅킹 신한 쏠의 야구전용 플랫폼 '쏠야구' 콘텐츠 참여시 1회당 연 0.1%p(최고 1.0%)를 적용한다. 4월 30일까지 적금 가입고객 선착순 10만 명에게 최대 3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연다.



우리금융 '그룹 내부통제 현장자문단' 운영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 그룹사 준법감시 실무자로 구성된 '그룹 내부통제 현장자문단'(사진)을 운영한다. 개별 그룹사가 보유한 준법감시 역량과 노하우를 전 그룹사에 공유하고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준법감시와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역량을 가진 그룹사 실무자 22명으로 구성해 현장점검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또 그룹의 자회사 현장점검을 참관해 그룹사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점검 후기 공유 및 준법감시와 자금세탁방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상생금융' 위한 사회적 책임 강조한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금융업 본질 '신뢰 회복' 우선"

취임 1주년 맞아 그룹 임원 간담회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고객 위해 이자·수수료 결정체계 원점 재검토 신뢰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등 주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최근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취임 1주년 맞이 그룹 임원 간담회를 열고, 모든 사회 구성원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제시했다.

함 회장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고충과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어떻게 배려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40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실리컨밸리은행(SVB)이 단 36시간 만에 파산한 원인은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금융회사의 말로가 명확한 것처럼, 금융업이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의 원점 재검토, 간편 요구권 확대와 수용,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상생금융을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상생금융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업의 본질인 신뢰 회복, 모든 사회 구성원과의 상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실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디지털 금융 선도를 위한 인재육성,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



하나금융이 모든 사회 구성원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룹 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함 회장은 "금융업이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화과 책임의식 고취를 제시했다.

함 회장은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룹 내부의 변화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건강한 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나은행,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

하나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도입 단계에서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내부 절차에 따른 심의를 통과한 상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또 소비자리스크 전담조직을 구성해 고객 투자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특정 상품에 국한하지 않고, 전 행 차원에서 시행하는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전 직원 완전 판매 강화 및 상담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행을 위한 고객 응대 시리즈 교육, 소비자보호 기반 고객 서비스 제도 개편 등을 시행 중이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안전판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투자상품 리제 도입(책임판매제도),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후 외부 전문가 리뷰 실시, 완전판매 프로세스 준수를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 개발, 답라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필체 인식 시스템 도입, 상품도입 절차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투자상품을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위험에 적시 대응하는 '소비자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도 눈에 띈다.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는 위험관리 체계가 부족한 점과 은행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노하우를 고객이 보유한 자산에도 적용해 수익은 물론 위험요인까지 관리하고자 개발했다.

내·외부 데이터 산출 및 분석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이상 징후 발생 시 위험 정보 알림과 공유를 통한 신속한 점검 및 대응, 고객별 맞춤 위험관리 컨텐츠의 지속적인 제공을 통해 상품의 선정·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산불 피해지에 나무 3만 그루 심는다"…두나무 '세컨포레스트 캠페인' 성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최근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진행한 '세컨포레스트 회복의 숲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

대형 산불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해 기획한 시민 참여형 환경보호 캠페인으로, 두나무의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진행됐다. 세컨블록 내 마련한 가상의 숲 세컨포레스트에 참여자들이 나무 1그루를 심으면 경북 울진에 실제 나무 2그루가 식재되는 방식이다. 4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지역에는 3만 그루 이상

의 나무를 식수한다.

두나무는 참가자들이 피해목 제거와 양묘 및 식수 등 미션 수행을 통해 산불 이후 산림 복원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 등 교육적 효과도 제공했다. 특히 산불로 인해 황폐해진 산림의 모습을 세컨포레스트 맵에 고스란히 구현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두나무의 기술과 참여자의 환경보호 의식이 모여 또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이라며 "향후 자사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회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한편 두나무는 ESG 키워드로 '나무'를 선정하고, 세컨포레스트를 활용한 캠페인으로 산림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3월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해 실제 경북 지역에 나무 1만260그루를 식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우리 숲 바로 가꾸기' 캠페인을 열고, 참가자들이 가상의 숲을 가꾸면 실제 산림청 주관 충북지역 숲가꾸기 체험 행사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회복의 숲' 캠페인 참가자들의 산림 회복 미션 수행 모습. 사진제공 | 두나무

했다. 이밖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물이력 관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재해·재난 근로자 심리 치유 힐링 프로젝트 '디지털 치유 정원' 등을 진행 중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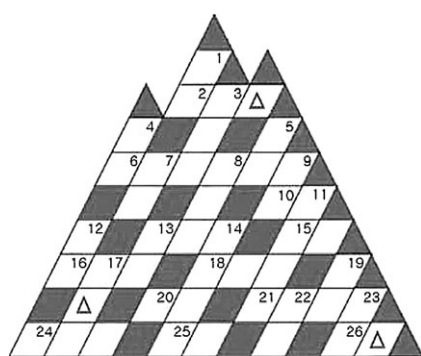
		6	5		9	1		
		5					7	
3			6		8			9
8		3		2		4		6
			4		1			
1		7		9		3		5
4			1		7			3
		1					9	
		5	9		2	7		

			7		6			
	1	5		8		2	6	
	6			2			7	
1				6		9		3
	9		2		3		8	
3		7		9				2
		8		3			1	
	5	1		7		8	3	
			8		1			

■ 스도쿠정답

1	7	2	8	6	5	9	3	4
2	6	9	7	9	8	1	2	5
8	9	8	2	5	1	6	2	7
9	2	6	9	6	9	2	7	1
2	8	6	1	8	7	2	9	5
9	1	7	5	2	2	8	6	8
6	5	2	8	1	9	7	3	4
7	8	1	6	2	1	5	9	6
7	8	1	6	2	5	9	9	8
9	2	7	1	5	8	8	2	6
6	8	8	2	2	9	1	9	7
5	1	2	7	8	6	2	9	8
2	9	9	8	6	1	2	7	5
2	8	1	6	7	2	9	6	9
8	7	6	2	9	9	8	2	1
1	2	8	9	2	7	6	9	8
7	9	2	6	8	5	1	2	9
8	6	5	9	1	2	7	8	3

■ 낱말문제



■가로열쇠 02. 어떤 일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 06. 여러 방면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낚잡아 이르는 말. 10. 취미를 위해 여러 재료를 찾아 모은. 13. 음식을 조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인. 15. 논밭에서 나는 곡식. 16. 쇠고기를 저며 양념하여 재웠다가

불에 구운 음식. 18.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이라는 뜻. 20. 부족한 것을 보태어 채움. 21. 공중으로부터의 적의 공격을 지상에서 막는 일. 24. 들 병장수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25. 뇌성과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중의 방전 현상. 26. 분개하여 성을 냄.

■세로열쇠 01. 낯은 것을 손보아 고침. 03. 땅이 움푹하게 파인 곳. 04. 물고기를 잡으러 배가 나감. 05.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함. 07. 사방의 중심이 되는 한가운데. 08. 수다스럽게 떠드는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09. 학과를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침. 11. 작은 것을 모아서 큰 것을 이룸. 12.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13. 시장기를 겨우 면할 정도로 먹음. 14.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음. 17. 높은 산에서 낮은 기암 때문에 일어나는 병적 증세. 19. 잘 막아 냄. 22. 힘을 들이지 않고 가져 얻은 물건. 23. 생선을 찌거나 말려서 만든 가루.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칸을 이 어놓으면 산 이름이 됩니다.

